

함께하는 독서활동, 높아지는 청렴가치

(주택보증부)

①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공직자로서의 인식 및 청렴에 대한 사례 전파 부족으로 부서원 간 청렴 공감대 형성 미비
- 청렴을 주제로 한 고전·인문서적 읽기를 통해 청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간접 체험하여 직원의 청렴의식 고취

② 추진내용

< 주택보증부 청렴활동 추진 일정 >

추진내용	추진일정(주차별)												비고
	6월			7월			8월						
1. 청렴 우수서적 지정	■												
2. 독서 및 독서후기 작성				■	■	■	■	■	■	■	■	■	
3. 우수 독서후기 선정													■
4. 윤리점검의 날 우수후기 발표													■

1. “청렴 우수서적” 지정

- 부서원의 추천을 받아 부서 자체적으로 청렴 우수서적을 지정
- 10권의 후보서적 선정 후 부서원 의견을 청취 중 **윤리의식은 과거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에 따라** 관련 서적 3권 선정
 - * 우수서적 3권 : 다리미를 든 대통령, 조선시대 청백리 열전, 목민심서
- 향후 공사 직원이 관련도서를 읽고 청렴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선정도서는 공사 도서자료실을 통해 구매

2. 지정도서 독서 및 독서후기 작성

- 총 6권(지정도서 3권 각 2부)을 부서원에게 대여하여 릴레이 독서
- 지정도서 모두 옴니버스식 구성임에 착안 독서자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여 부서원간 청렴 공감대 형성 노력**
- 부서원 자발적으로 A4용지 1장분량의 독서후기 작성
 - * 우수 독서후기 선정시 문구·기프티콘 제공으로 후기작성 인센티브제공

3. 우수 독서후기 선정 및 발표

- 부서원 제출 후기를 주택보증부장 및 팀장평가를 통해 우수후기 선정
- 3분기 윤리점검의 날을 개최하여 독서 감상 후기에 대해 부서원간 의견을 교류하고 우수 독서후기 선정내용 발표('15.8.25.)

③ 파급효과(성과)

- **(청렴문화 확산)**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청렴과 윤리의식의 기준점을 정립하고 부서원간 청렴가치 및 모범사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의 청렴문화 확산**
- **(공사 청렴 이미지 제고)** 차후 독서후기의 공사 SNS 및 주택연금 소식지 게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사의 청렴 확산 노력과 사례를 알려 대외적으로 윤리와 청렴의식을 갖춘 한국주택금융공사로서 **청렴이미지 제고**

붙 임 : 추진근거 1부. 끝.

붙임

후기1

황희 : 나도 인간이다 - 본격 비하인드 스토리

세종성대. 이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평성대였고 조선시대 중에서 가장 눈부셨던 발전을 이룩했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다. 임금이 뛰어난 만큼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인재들이 많았다. 임금 세종대왕부터 제일 유명한 '집현전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한글 창제'를 주도하는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였다. 그리고 인재들 중 그의 총애를 받았던 청백리로 유명한 황희 정승이 있었다. 황희 정승은 특히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 세종대왕 때 눈에 띄는 인재들은 거의 황희 정승이 추천했다고 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세종성대 때 특별히 인재들이 많이 났던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과 황희 정승이 인재를 보는 안목이 뛰어났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훈훈한 세종성대를 쪽 보다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황희 정승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인간인 이상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한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기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인터넷에 장난삼아 황희 정승 비리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생각 외로 여러 글들이 나왔다. 이때까지 황희 정승은 청백리의 표상이고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다고 알고 있어 충격에 빠졌다. 심지어 그는 '계란유골(鷄卵有骨)'이라는 말이 나오게 한 인물이 아닌가!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겠지만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후세에 그가 대표적인 청백리라고 배웠고 알고 있지만 인터넷에 그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야사도 많은데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때까지 몰랐던 황희 정승의 인간적인 면을 한 번 파헤쳐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황희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찾아보는 뒷조사가 이번 보고서의 주제가 될 것이다.

청백리 황희 정승. 이때 청백리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정확하게 찾아보기로 했다. 청백리란 청렴결백한 관리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엄근리(廉謹吏)라 하고, 이미 죽은 자를 청백리라고 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청백리로 선정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그 자신과 후손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백리를 선정하는 기준은 찾을 수가 없었고,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 2권에 '상산록에 이르기를 청렴에 세 등급이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봉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설령 먹고 남은 것이 있더라도 (집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며 (퇴직후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쓸쓸하게 한필의 말만 남는 것이 옛날에 이른바 염리(廉吏)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 중고 시대의 소위 염리(廉吏)라는 것이었다. 가장 아래로는 무릇 이미 선례가 서있는 것은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선례가 서 있지 않은 것은 자기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함임 등의 벼슬도 팔지 않으며 재앙을 핑계로 곡식을 농간하지도 않고 송사(訟事), 옥사(獄事)를 돈으로 처리하지도 않으며 세금을 더 부과하여 남는 것을 착복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소위 염리(廉吏)라는 것이다. 녹봉만으로 지내는 것이 본시 선한 것이지만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마 그 다음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소위 최하의 것은 아마 옛날 같으면 반드시 살아 죽었을 거시다.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로 설명되어 있다. 즉, 우리 때나 그 시대나 비슷한 의미, 쉽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행하기에 어렵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쓰인 것이다.

황희 정승의 인간적인 면모를 찾기에 앞서 황희 정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의 성씨인 황은 장수(長水) 황씨로 황석부가 그의 종시조이다. 황석부는 이조판서로, 그의 아들 황균비는 송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으로, 또 그의 아들 황군서는 영의정으로 추증(追贈)되었다. 그리고 황군서의 아들이 황희이다. 이렇듯 그의 가문은 대대로는 아닐지라도 명신들을 배출해낸 명문가였다. "황희는 1363년 2월 10일, 송정(개성) 가조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장수(長水), 처음 이름은 수로, 자는 구부, 호는 방촌, 시호는 익성공이다. 황희가 태어났을 때 온 집안에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다고 전해진다. 자손의 귀한 가문에 둘째아들이 태어났으니 집안의 큰 경사였다." 그의 출생에 대해 찾던 중 의외의 것도 찾았다. 그가 적자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실록과 단종실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희는 판광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열자(孽子)이었다", "그가 이르기를, '황희는 황군서(黃君瑞)의 열자(孽子) 이라'고 한 것은 일찍이 이러한 말이 있었다. 황희도 또한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정실(正室)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다행히 조선 초에는 서얼이라 할지라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황희 정승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황희 정승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황희 저승은 알려지기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에는 스스로 일하여 국가에서 받은 녹봉으로 살았고 그 어떤 욕심도 갖지 않고 살아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비가 새는 누옥에 살았고 관복도 한 벌 밖에 없던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표현한 말이 있다. "황희는 성품이 너그럽고 후하고 신중하며, 재상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과 깊은 생각이

있었다. 그의 생김생김은 풍만하고 빼어났고, 뛰어나게 총명했다. 집을 다스리는 데도 검소했고, 기쁨과 노여움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며, 일을 의논할 때는 공명정대하여 원칙을 살리기에 힘썼다. 이 외에도 우리가 황희 정승의 청빈한 삶에 대한 일화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황희 정승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서 명석을 깔고 있는 등 그의 청빈한 삶에 대해 감탄한 일화나 황희 정승의 가난을 보다 못한 세종대왕이 그에게 이번 장에 들어오는 물품은 모두 사서 황 정승에 주도록 했지만 하필이면 그날 폭풍우가 내리쳐 장사치들이 없었는데 문 달을 썬 노인이 달걀 꾸러미를 들고 와 그것을 황희 정승에게 주었지만 달걀이 모두 곱아있어 한 알도 못 먹었다는 계란유골의 일화 등 다양하다. 그 외에도 “그에게는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이 남아 있다. 말 못 듣는 정승에게도 함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검은 소 누런 소의 이야기도 그렇고, 노비의 아이들이 수염을 잡아당기고 오줌을 싸거나 심지어 자신을 때리면서 장난을 쳐도 화내지 않는 둥글둥글하고 너그러운 할아버지였다고 한다. 뿐만인가. 노비도 하늘의 백성이니 어찌 함부로 부리겠느냐고 말했고, 종들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때리지 않았으며, 집 뜰의 복숭아(혹은 감)나무의 열매를 아이들이 모두 따 가버려도 화내지 않으며 웃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 싸우는 사람들을 중재하며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하자, 대체 누가 맞느냐는 부인의 통박에 부인의 말도 맞다는 이야길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가 있다.

청백리 황희 정승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다. 이런 그에게 부정부패와 같이 안 어울리는 단어가 또 있을까? 하지만 그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말이 있기에 이제부터 하나하나 조사해 보기로 한다. 우선 그가 살던 누옥, 비가 새는 집으로 유명했는데 그가 정말 그곳에 살았을 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청백리의 대표적인 사례인 황희 정승도 집안에 데리고 있던 노비가 30명 정도였고 외거노비가 70명 정도였다고 하니 이것이 보편적인 생활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황희 정승이 집안에만 데리고 있던 노비가 30명인데 그가 두 칸 정도의 집에서 살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의 집은 임금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 그가 임금에게 “황공하옵니다.”를 반복했다고 했는데 집안의 노비만 30명이라니 그럼 그 노비들은 어디서 지냈다는 것인가. 그의 집이 과연 두 칸 정도였을까? 이는 단순히 과장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그의 집이 두 칸일 수가 없는 것이 황희 정승의 아들이 잘못을 하여 치룬 대가를 살펴보면 “임금이 보신을 황희(黃喜)의 아들이라 하여 특별히 관대하게 용서하여, 단지 장(杖) 1백 도에, 자자(刺字)는 면하게 하고, 유(流) 3천 리를 속(贖)바치게 하고”이 있다. 여기서 속(贖)이란 죄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닌 돈을 내고 이를 면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석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황희 정승은 찢어지게 가난한 것으로 유명한데 속(贖)을 바친다니. 슬슬 이상하다는 느낌이 온다.

그가 좌의정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첨절제사(僉節制使) 박유(朴膺)가 선군(船軍)을 시켜 청각(靑角) 두어 말을 싸가지고 좌의정 황희(黃喜)에게 증정(贈呈)하다가 금란리(禁亂吏)에게 잡혔으니, 정하건대 감수자도율(監守自盜律)로써 논죄하여 장(杖) 80대에 처하소서.”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황희 정승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황희 정승은 뇌물을 받지 않고 허허롭게 신선처럼 살아갈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것을 보고 처음 든 느낌은 배신감이었다. 황희 정승과 뇌물에 관한 것을 찾아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바로 나오다니. 믿었던 사람 허무하게 만드셨다. 여기서 황희 정승과 뇌물 사건이 연루된 사건이 끝나야 하면 그건 아니었다.

이제부터 그와 연루된 뇌물 사건들을 쭉 나열해보겠다. “또 관가의 둔전(屯田)을 의정(議政) 황희와 어머니 김씨에게 주었으니, 반드시 그 실상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직첩을 거두고 고문하여 다스리소서.”, “용이 그의 아내 복덕(卜德)으로 하여금 세가(勢家) 집에 가서 편지를 받아 왔다.’ 고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용의 아들 박천기(朴天己)를 잡아다가 물으니, 말하기를, ‘아버지가 좌의정 황희(黃喜)에게 말 한 필을 뇌물로 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편지를 받아 왔으며”, “김익정(金益精)과 더불어 서로 잇달아 대사헌이 되어서 둘 다 종 설우(雪牛)의 금을 받았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황금(黃金) 대사헌」 이라고 하였다. (생략)황희가 장인 양진(楊震)에게서 노비(奴婢)를 물려 받은 것이 단지 3명뿐이고,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흠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에 매관매직하고 형옥(刑獄)을 팔아 <뇌물을 받았으니,> (생략)박용의 아내가 말[馬]을 뇌물로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일은 본래 허언(虛言)이 아니다.” 마지막 말은 당시의 사관이 황희 정승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던 것이라 진위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실록에 쓰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황상 사실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년 세종대왕이 황희 정승을 감싸주기는 했지만 “황희가 교하(交河) 수령 박도(朴禱)에게 토지를 청하고, 도의 아들을 행수(行首)로 들어 붙였으며, 또 태석균(太石鈞)의 고신에 서경하기를 청하였으니 진실로 의롭지 못하였으며, 간원이 청하는 것이 옳았다.”를 보면 그도 황희 정승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긴 하였다. 내가 찾은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있는 뇌물수수의 일들은 대부분 찾아왔다. 솔직히 생각하면 황희 정승만한 가문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도 관찮을 것 같기는 하다. 물론 뇌물을 받은 것은 나쁘지만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이런 가문에는 뇌물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그에 비해 황희 정승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황희 정승이 부패했다는 것을 믿기 싫어 내 스스로 황희 정승의 비리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황희 정승에게 ‘왜 그러셨어요! 왜 내가 방어막 쳐줄 수도 없을 정도

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라고 여쭙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말 세종대왕이 매년 황희 정승을 방어해줄 때 들었던 생각이 나와 같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것은 황희 정승이 뇌물을 받은 것을 가져온 것으로 황희 정승 비리의 빙산의 일각이었으니 참으로 통탄할만한 일이었다. 이제 그와 엮인 좀 더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펴보았다.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과 형조 판서 서선(徐選)을 의부금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사연은 서달(徐達)이 신창(新昌)의 아전을 죽인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다.” 이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서달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황희의 사위이자 형조판서 서선의 아들이기도 했다. 이처럼 서달은 뒷배경이 매우 든든한 사람이었다. 이런 서달이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이를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형조판서 서선이 나서서 무마시킨 사건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문이 생긴 세종이 재조사를 시켜 전말이 드러났다. 또한 “영의정 황희는 일찍이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친한 사람에게 사정을 두어, 태석균(太石鈞)이 죄를 받을 때에 당하여 사헌부에 부탁하여 고신(告身)을 내어주기를 청하는 데 이르렀으니, 대신으로 나라를 몸받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은 제주도의 감목관으로 있었던 태석균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관마 1천 필이 몰살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황희가 ‘태석균이 불쌍하다’라 말한 것을 기록에 남겨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일들을 봐서도 청백리 황희 정승의 환상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한 방에 환상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황희 정승의 간통 사건! “난신 박포(朴苞)의 아내가 죽산현(竹山縣)에 살면서 자기의 종과 간통하는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니, 박포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 넣었는데 여러 날만에 시체가 나오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현관(縣官)이 시체를 검안하고 이를 추문하니, 박포의 아내는 정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으며, 포의 아내가 일이 무사히 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이는 황희 정승이 박포의 아내를 숨겨주는 대신에 그녀와 간통한 것을 말해준다. 이럴 수가. 이것은 내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 황희가 간통이라니. 이 역시 위의 가치판단을 섞어 쓴 사관의 글이긴 하지만 말했듯이 사실일 수도 있다. 정말이지 황희 정승의 비리에 대해 찾아보면서 믿기 싫은 사실들, 혹은 그 정황들이 낱알이 나오는데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을 이때 쓰나보다. 하지만 이대로 황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조사를 마치는 싫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황희에 대한 변명을 찾아보고 써보기로 했다.

황희의 너그러운 성품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그가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 것인가. 더 잘해주고 챙겨주고 싶지 않을까? 우리 같은 일반인은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에게는 악해진다. 아마 황희

도 인간인 이상 자신의 주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나 보다. 태석균 사건 등 그의 사람들에게 얽힌 비리는 그의 인정이 부정적인 쪽으로 발현된 것 같다. 솔직히 큼직 큼직한 사건들은 황희 정승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인들이 저지른 일들이었다. 간통 같은 경우에는 예외지만 이를 기록한 사관이 황희에게 나쁜 감정으로 기록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간통만큼은 믿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정승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정승이라는 말도 듣고 그가 받은 뇌물들을 생각하면 애교로 봐주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조선이다’에서 황희 정승을 설명한 구절이 딱 내가 생각했던 바인데 “세종 시대의 정치는 말하자면 토론식 정치였는데 이 단점은 토론의 와중 논의가 엉뚱하게 흘러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이야기하다 배가 산으로 간 경험은 누구나 겪어봤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토론의 전체를 파악하고 결가지를 쳐내어 배의 방향을 정하는 추인데, 황희의 재능이야말로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부인의 말도 옳다고 말했다던 황희의 설화는 언제나 난립하는 의견들을 조정했던 그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이다.(생략)하지만 사람 좋고 순한 황희도,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는 황희도, 혹은 강경하게 극언을 해서 쫓겨나는 황희도 모두 한 사람의 다양한 일면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건대, 황희는 사람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 같다.(생략)사실 완벽한 재상이란 없다. 그에 비한다면 황희는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오랫동안 정승으로 있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이었다.” 황희 정승이 부정부패가 있었다곤 하나 황희의 능력은 그것을 가릴 만큼 뛰어났다. 그가 청백리의 표상이라는 것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겠지만 그도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끔씩 일탈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완벽하게 살면 재미가 없지 않은가!

후기2

청렴을 뛰어넘어

목민심서는 부임부터 퇴임까지 목민관(벼슬아치)의 자세에 대하여 종합서술한 책이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귀양살이 중 저술한 책’이라는 기본적인 상식 외에는 전혀 아는 게 없었는데,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목민관의 입장이 되어 읽어 보니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서(名書)가 괜히 명서가 아니었다. 시대를 아우르는 명서를 읽으면서, 나의 무지에서 오는 답답함, 그 가운데서

도 느껴지는 흥미로움 그리고 인문고전을 맛보았다는 신선함이 나를 지배하였다. 총 12강 중 특히 율기편을 집중·반복하여 읽었는데, 율기편은 행정업무에 임하기에 앞서 목민관의 몸가짐에 관한 내용을 강조한 부분이다. 율기편에서도 특히 청심(淸心), 즉 청렴결백한 마음가짐은 공사의 직원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 더욱 관심이 갔다.

사람됨이 영결하지만 생각이 치밀하지 못하면 재정만 낭비할 뿐, 실속이 없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오히려 아전이나 토호들만 살찌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목민관은 영결을 숭상하면서도 생각이 치밀하여 행정이 밝아야함을 강조하였다. 이 대목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이백년 전 생각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됨에 머릿속이 밝아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가. 마음만 청렴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업무를 잘 알고 잘 익히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사의 직원으로서 갖춰야하는 덕목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목민관은 너그러움으로써 백성을 대해야 하며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하고, 상관이 탐욕하면 백성들이 오히려 살 길이 있으나, 맑으면서도 각박하면 곧 살 길이 끊어진다고 하여 상대방(고객)의 입장을 헤아리며 업무를 행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켜주었다.

흔히 청렴함이라 하면 깨끗한 마음가짐, 사사로운 욕심에 얽히지 않음을 떠올리게 되는데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이를 뛰어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더불어 가져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다.

후기3

다리미를 든 대통령

얼마 전 대한민국은 이른바 ‘성완중 게이트’ 사건으로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고 해명 인터뷰를 하는 뉴스가 매일 전파를 탔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은 매년 있었던 일 이기에 놀랍지 않지만, 유력 정치인의 뇌물 스캔들이 익숙한 상황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만 하다.

이런 현실에서 ‘다리미를 든 대통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2002년 한국을 방문한 핀란드 대통령이 보여준 겸손한 모습은 정치인 비리에 지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며, 뇌물에 둔감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고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타르야 카리나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은 방한 당시 본인의 자택에서 사용하던 다

리미와 다리미판을 가져와 객실에서 손수 옷을 다려 입었으며, 호텔에서 제공한 전문 미용사의 머리손질도 사양했다고 한다.

또한 핀란드는 복잡한 시스템은 없으나 모든 업무 처리가 개방되어 누구나 국가 업무의 잘못된 점을 알 수 있고, 국민들이 높은 반부패의식을 가지고 있는 등 청렴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사회에 만연한 부패로 인해 경제, 교육 같은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는 아픈 경험을 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패 없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핀란드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나오는 동·서양의 부패 및 청렴 사례에서 얻는 교훈을 우리 국민들이 되새길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민감하고, ‘청렴’이라는 단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하루 빨리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믿는다.

후기4

부임, 율기, 봉공, 이전, 해관의 이해와 감상

서론

목민심서가 집필되던 조선시대 사회는 임진왜란, 임오군란 등의 전란을 치르며 파국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민심을 날로 피해해져 가고 있었고 전란을 수습할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리학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잦은 당쟁과 탁상공론으로 정계 또한 흥흥해져 가는 시점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성리학적 한계를 벗어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근대적인 자율적 인간관을 형성시켰다. 그는 인간의 심적 활동에 의한 자주적인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어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자율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전개된 다산의 목민사상은 민을 정치적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근대적인 민의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론

다산은 평생의 학문연구를 통해 유학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관리로서 자신의 경험을 펼친다는 사(士)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경학과 경제학 연구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는 지인(知人)인재를 관리로 등용하는 것, 안민(安民)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개혁안을 요약해보면 군주론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군주권의 기본이 되는 농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양반귀족이나 지방 토호층의 중간수탈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개혁 방안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이 점차 진전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 아직 국가의 주요산업은 농업이었고, 그의 개혁안 역시 농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다산은 한때 전론, 탕론, 원목 등을 통해 혁명적 개혁안을 제시해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선 후기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행법의 안에서 목민관들의 양심에 호소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 다산의 사상은 각종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당시 농민들의 주장과 다산의 개혁안은 공통점이 많았다. 그러나 농민들이 아래로부터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한 반면, 다산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한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다산사상의 특징이라면 목민심서는 이러한 다산사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안정이었다. 현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목적의 실현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로 민주주의가 있듯이 한민족의 정치사상으로는 목민사상이 있었던 것이다. 백성 전체의 삶을 위하여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 맡은 사람 스스로 극기하며 일하는 목민정신이야말로 오늘날 한국문화창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의 사회는 다르다. 그러나 교훈과 계승은 시대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산의 목민사상은 현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산은 목자의 자세를 수기에 두어 율기를 역설하며, 율기는 칩궁, 청심으로 시작한다 하였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목자된 자는 마땅히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상은 사상적 원류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미래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창조하려 할 때에는 가장 먼 옛날에 순수하게 형성된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다산은 조선조 후기의 혼탁한 사회를 개혁하는 방책을 옛 지혜속에서 찾으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유학사상을 그대로 전승하거나 답습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통하여 과거의 사상을 음미하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식과 사유방법을 전개하였다.

결론

다산의 목민사상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그 근본적 사상

은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목민사상이 비록 1세기 반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정치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사상에는 학문적 레벨에서 볼 때, 한국정치학의 토착화와 주체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통용되고 있는 정치상의 보편적 규범과 이상적 상황을 다산은 150여년 전에 이와같이 논리적으로 구성하루 수 있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다산은 유학자이지만 전통사상을 역사적 현실에 재구성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민사상이 한국 전치사사에 교훈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날로 복잡해져가는 현대 정치에도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르침을 제시하는 저서임을 깨달았다.

후기5

목민심서를 읽고

내가 공기업 입사후 항상 듣는 말이 청렴과 윤리이다. 매년 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이제는 명함에도 청렴과 관련된 문구를 넣어야 한다. 어디에서 일하던 윤리와 청렴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해야 할 공기업조차 그것을 지키려 교육하고 명함에도 넣는 다는 것이 한편으론 부끄러운 일일 수 도 있다.

그런면에서 '목민심서'라는 책은 항상 강조되는 공직자로써의 덕목을 과거 우리 조상에게서 배운다는 점에서 내게는 큰 흥미를 끈 책이다. 책이라는 것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식을 준다는 것 이외에도 과거 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현재에 투영한 다는 것 만으로도 청렴과 윤리라는 기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모두 12강 6조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당시의 목민관(지방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과 더불어 농민경제 발전을 위한 내용을 서술한 책이다. 특히, 당시 관리의 폭정이라는 어수선한 시대상을 비판하며 쓴 책으로 나의 관심을 끈 편은 제2 율기(律己)편이다.

목민심서 제2편 율기(律己)에 칩궁(바른 몸가짐), 청심(청렴한 마음), 제가(집안을 다스림), 병객(청탁을 물리침), 절용(쓰쓰미를 절약함), 낙시(베풀기를 줄야함) 총 6조로 되어있다. 이 모두는 우리가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고민할 사항들로 보인다. 특히, 칩궁과 청심, 병객 부분을 읽으며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는 비리의 모습이 떠

오르는 건 왜일까?

사람이 살면서 기본과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공기업 비리나 청탁문제들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척공과 청심은 공직자로서의 근본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굳이 드는 생각은 저 두가지를 지켜낸다면 병력이라는 내용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였다.

결국 목민심서 읽고 알게 된 것은 지금도 강조되는 청렴과 윤리가 과거에도 강조되었음을 알게해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현재에서도 배울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공공기관 사원으로서 지켜야할 구체적 청렴과 윤리의 기본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은 내게 큰 도움이 된 부분이였다.

비록, 청렴과제라는 목적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지만 어릴때부터 많이 들었던 책을 이제야 읽으면서 왜 이제 읽었을까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이제라도 읽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명함을 만들때는 청심(淸心)이라는 문구를 넣어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후기6

조선시대 청백리 열전

얼마 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한국 공직사회는 부정한 청탁과 이에 따른 불공정한 업무집행이 연례행사처럼 밝혀져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밝혀진 방산비리, 함바비리 등 부정부패의 영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부터 건설업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영역까지 넓게 퍼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시대 청백리 열전'은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선 성종 때 선비인 '김정'이라는 분의 삶은 청백리 그 자체를 보여준다.

어린나이에 장원급제하여 주목을 받았지만, 늘 청백한 삶을 살아온 모습은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린 시절 같이 공부하고, 공직에서도 같이 근무했던 친구의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자신이 받은

급여는 어려운 이웃과 친척을 위해 쓰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야만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단 선비 김정 이외에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선조들이 보여준 청백리의 삶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우리 공직사회에 큰 가르침을 줄 것이며, 아울러 향후에는 현 시대의 공직자들도 먼 훗날 후손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후기7

『조선시대 청백리 열전』을 읽고

충직과 청렴의 한 평생을 살았던 조선시대 청백리 허종은 언제나 “부귀는 하늘에 달렸는데 어찌 애써 이를 바라단 말인가. 함부로 분수를 넘으면 오히려 재앙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함부로 분수를 넘음으로써 나라 전체에 재앙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다. 무더운 여름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한 원전비리는 소수의 사람들의 부패가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비리 사건 중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압축성장의 여파로 부정부패의 흔재, 도덕의 타락과 사회의 아노미적 병폐 등으로 사회윤리의 정신적 지표가 송두리째 마비되고 있다. 특히 공직부패의 문제는 사회 각 계층과 전 분야를 망라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오늘날의 공직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전통적 공직윤리인 조선조의 청백리윤리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가난한 청백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원익은 1608년에 대동법을 실시하여 조선 후기 사회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의 분수에 안주하지 못하면 마침내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함으로써 화를 자초하게 된다.”고 분수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인조는 그에게 흰 이불과 옷 한 벌을 하사하면서 “경은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으니 이것으로 과인의 경에 대한 경의의 뜻을 표하오.”하고 하교했다. 이원익이 나라와 백성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동법 실시라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은 바로 청백리정신이었던 것이다.

청백리정신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청렴의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진정한 청렴이라고 할 수 없다. 선조 때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임진왜란 중 많은 공적을 쌓았던 오억령은 청백리로 뽑히는 것을 사양하였다. 조선조에서는 청백리로 녹선되면 본인은 품계가 한 계급 올라가고, 그의 자손에게는 소위 음사의 특전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사대부가에서는 이를 다시없는 영광으로 여겼다. 그런

데도 오억령은 스스로 이를 굳게 사양했던 것이다. 이처럼 청백리정신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청백리정신을 지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조선시대 정종영 또한 재상이면서도 초가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다. 공복 이외에는 비단옷이 없어 평소에는 베옷을 즐겨 입고 마치 가난한 선비처럼 지냈다. 또 그는 언제나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나들이를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면 “사람이 사람의 어깨에 앉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렴하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이 불편하여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공직에 꼭 필요한 인재라 할 것이다.

스스로 청렴한 정신을 지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반성과 발전의 기회를 준다. 또한 청렴한 정신은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가져온다. 청렴한 정신은 결국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국민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청렴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후기8

‘다리미를 든 대통령’을 읽고...

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 제목이 왜 ‘다리미를 든 대통령’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독서를 시작했다.

책의 중간 정도에서 이에 대한 해답이 나왔다. 지난 2002년 핀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집에서 사용하던 다리미와 다리미판을 가져와 객실에서 손수 옷을 다려 입었다고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리미를 직접 가지고 다니며 옷을 다려 입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상 깊은 일화를 책 전면에 내세워 역사 속 부패 사건을 통해 우리들의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부패를 정의하고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 사례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부패(腐敗)라는 말은 썩어 부스러진다는 뜻이다. 영어로 부패는 corruption인데 완전이라는 뜻의 ‘cor’과 부수다는 ‘rumper’가 합쳐진 말이다. 즉, 완전히 부수다, 부서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처럼 부패라는 단어는 총체적인 파멸로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저자는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부정부패가 어떻게 행하여 졌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악영향 그리고 부정부패 관료의 최후를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의 부패지수 및 부패로 인한 사회의 문제점 등을 예로 들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들이 부정부패와 어떻게 거리를 두고 있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부정도 단오 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발생한 부정부패가 어떻게 망국의 원인으로 치달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 상품 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 각종 정치인의 친인척 비리 사건 등과 같은 최근의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 또한 책에서 다루고 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행한 부정적이고 청렴하지 못한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사회·교육·복지 등의 기본 틀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책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나라의 부패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생각해보았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학연과 지연에 집착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부패를 조성하는 으뜸 원인으로 꼽힌다.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지표인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2014년 기준 43위를 기록하고 있다. 6년 연속 정체 및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해보았을 때도 43위라는 순위는 꽤 민망한 순위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어떻게 해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이럴 때일수록 싱가포르 전 총리 ‘리관유’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관유는 자신부터 반부패 개혁에 동참했고 공직자의 비리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일벌백계했다고 한다. 그는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굴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싱가포르가 건재했던 이유를 반부패 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인해 치욕적인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사회 분위기를 또한 각박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2015년 현재 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다시 한 번 IMF 사태처럼 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라 경제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효율 측면을 보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나라의 핵심과제이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거창한 프로세스나 아이디어보다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원리·원칙을 얼마나 일관성이 있게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리관유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부터 청렴결백을 지켜나가면서 솔선수범한다면 청렴이라는 백신이 전 사회에 전달되어 국민의 마음과 대한민국 사회를 하얗고 투명한 ‘백의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만큼 살면서 여러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혹의 함정들이 모여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 왔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 모두 다리미를 들어보자. ‘다리미를 든 대통령’이 되어보자.